

야권,尹 의대 정원 확대 대국민 담화 '맹비난'

“2000명 숫자에만 매몰... 불통 정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2000명 숫자에만 매몰된 불통 정부”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먼저,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전환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불씨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이 참석하지도 못하고, 질문도 없이, 새로운 내용도 없이,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한 시간 가깝게 전달하는 오늘 담화는 불통 정부의 모습 그대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대변인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두고 “강서 보궐선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의대증원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니,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을 덮기 위해서 설 명절 직전에 파격적인 숫자를 발표하고, 의료계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데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사태를 부추겼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단지 숫자만 늘리는 증원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 효과가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라”고



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민주당 “내심 기대했더니 역시나 ‘마이동풍 정권’ 확인”
새미래 이낙연 공동대표 “정부·의료계, 당장 대화하라”
정의당 “공론화위 구성”·조국혁신당 “의사 피의자로 보나”

추구했다. 나순자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은 정부와 의사의 강대강 대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19차례에 걸친 의정 논의가 공허했듯 의사와 정부만의 협의체만으로는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와 병원노동자,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들은 즉

시 현장에 복귀해 끝간데없는 강대강 대치를 끝내고 국민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로운미래 광주 광산을 후보인 이낙연 공동대표는 “적극적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는 일방통행의 전횡”이라며 “의대 증원 2000명 고집과 변명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환자와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이다.

지금 의료 현장은 1분이 아쉬울 만큼 다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의료계에 책임을 떠넘길 만큼 한가하지 않다”면서 “정부와 의료계는 즉시 의료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이 혼란과 고통을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계는 즉시 의료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의사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당장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 통해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개탄한다”고 탄식했고,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은 의사들을 피의자로 보느냐”고 불어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국민담화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1

“잼버리 파행 책임 마땅... 후보직 사퇴를”

새미래 신원식 후보, 김윤덕 후보 향해 사퇴 촉구

“새만금 예산 삭감 빌미 제공 도민들에게 큰 피해”

새로운미래 신원식 후보(전주갑)가 1일 총선 경쟁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를 향해 “잼버리 파행에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신 후보는 “김윤덕 공동조직위원장은 1,1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준비부족과 운영미숙으로 파행을 초래해 새만금 예산삭감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준 것만으로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후보는 “김윤덕 공동조직위원장은 1,1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준비부족과 운영미숙으로 파행을 초래해 새만금 예산삭감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준 것만으로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당시 여성가족부장관과 함께 잼버리 조직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개명식 직전 잼버리 유치를 본인이 처음으로 제안했으며,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치적을 치켜세웠지만 정작 잼버리 파행 이후 ‘공공’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택시업 활성화·민생경제 회복 최선”

민주당 이성운 후보, 개인택시단위조합과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후보(전주을)가 1일 전주개인택시단위조합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개인택시 조합원들의 애로사항과 업계 현안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운 후보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국민담화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성운 후보는 “전주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항상 애써주시고 계신 이주섭 조합장과 개인택시 조합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22대 국회에 임성하게 되면 택시업계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성운 후보는 “전주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항상 애써주시고 계신 이주섭 조합장과 개인택시 조합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22대 국회에 임성하게 되면 택시업계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병관 신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취임

“민생 최우선, 현안 해결에 혼신 다 할 것”

“Festina lente!(천천히 서둘러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격언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차분하게 해안을 찾고, 철저한 준비와 실행력을 갖고 뛰여 우리 앞에 기회가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도록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신임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취임 포부를 밝히고 중앙부처에서의 25년간 국정 운영 경험을 살려 도정 주요 현안을 착실히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 행정부지사는 “지난 2018년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뒤 전북을 떠나 6년만에 고향에 돌아와 행정부지사로 부임하게 돼 영광이다”며, “우리 전북이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새



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병관 행정부지사 취임식에서 최 부지사가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도정 발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끊임없이 공부하겠다. 도전경성의 자세로 지치지 않고 도전하겠다”며 “도민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바이오투융단지 지정과 세계인인 비즈니스 대회 성공 개최 등 현안 해결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최 부지사는 또 “도민의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체감할 수 있는 지방정부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의회 등 각계와도 긴밀히 협력·소통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서로를 신뢰하며, 협동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창조해 낼 수 있도록 직원들과 활기찬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지사의 이날 공식 업무는 취임식에 앞서 열린 김관영 도지사 주재 정책조정회의부터 시작했다.

익산 출신인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지역에서는 전북도 기획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경제지원관, 대변인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재훈 기자

새미래 신재용 후보, 음주운전 뺑소니범 붙잡아

새로운미래 신재용 후보(익산갑)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한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 후보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한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신재용 후보 캠프에 따르면, 신 후보는 지난달 30일 밤 10시 40분경 익산에서 선거유세를 마치고 자신의 선거사무소로 돌아가면서 시민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던 중에 교통사고를 목격했다.

당시 흰색 쏘나타 차량이 빠른 속도로 돌진해 인도 경계석을 끊으며 신

신 후보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한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 후보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한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